

#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 국제 안보 불안에 따른 한국 해양 전략의 방향성 ]

이름	이준행
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학번	20242565

# 국제 안보 불안에 따른 한국 해양 전략의 방향성

이준행

1. 서론
2. 본론
  - 2.1. 한국형 A2/AD 전략
  - 2.2. 무인 무기체계의 거점화
  - 2.3. 흑산도 공항의 군사기지화
  - 2.4.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
3. 결론

## 1. 서론

‘역사적 유추가 본질적으로 부정확’<sup>1)</sup>하다는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중, 서구와 비(非)서구 간의 세력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동향이다. 현재까지 ‘서구적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안’<sup>2)</sup>는 비서구적 레짐 국가로서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 시도와 패권국 미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은 위의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러한 대응의 일례로 지난 2022년 8월,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Nancy Patricia Pelosi)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예방(禮訪)한 일을 들 수 있다. 이는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일이다. 미국의 대만 예방 이후, 중국은 타이완섬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 해상 연합훈련인 RIMPAC(Rim Of The Pacific Exercise, 이하 림팩)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응수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막지 못한’ 중국과 ‘세력 전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닌’ 미국 간의 강경한 외교적 기류가 형성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지속적인 대외적 마찰은 안보 위기를 고조함과 동시에 양 세력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학계에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sup>3)</sup>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신냉전의 불안감을 넘어 국제 정세 전체의 파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上記)한 패권 경쟁과 끝없는 국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굳건한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Henry Kissinger. (2011). On China. The Penguin Press. p.700.

2) 이기현. (2020). <중국의 불만족 증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재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4호. p.25.

3)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패권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외적 마찰 및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엔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용어. 본고에서의 새로운 강대국은 중국, 기존 패권국은 미국이다.

## 2. 본론

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발맞춘 형태의 자주국방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헤게모니적 국가 관계<sup>4)</sup>를 맺어온 미국이 한국과의 연대를 끊는 것은 미국에 지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이 대중 견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일반적 관측<sup>5)</sup> 또한 위에서 제시한 추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 2.1 한국형 A2/AD 전략

한국형 A2/AD 전략<sup>6)</sup> 구축은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에 접근해 오는 중국의 세력 확장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동시에 한국형 A2/AD 전략은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 전략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중 미사일 기지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서-남해안은 약 3,348개의 섬이 산재<sup>7)</sup>하는 대표적인 다도해로 제주도를 포함, 알파벳 'L' 자 모양으로 형성된 외곽 도서의 선을 따라 한반도 요새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형 A2/AD 발상의 기초 구상은 이미 유수의 연구<sup>8)</sup>에서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그 효용 가능성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 방안은 서해와 남서부 연안에서 불필요한 해군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동해 지역의 전력 강화 및 대양해군 건설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서남해 외곽 도서에 아래와 같은 군사 제반적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중국 A2/AD와 유사한 형태의 서남해 대함미사일 기지 구축</li><li>2. 공군력과 연계 가능한 형태의 지휘 통제 체계 구축</li><li>3. 외곽 도서 일부의 대잠수함 기지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 알테미스 계획 및 시저 계획 모방</li><li>- IUSS 구축</li></ul></li><li>4. 제주 해군 기지 거점의 해양 거부 능력 확충</li><li>5. 제주 해군 기지 거점의 대양 통제 능력 지원 능력 확보</li></ol> |
|---|

4) 헤게모니 적 관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부문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데, 미국은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 등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은 헤게모니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5) 김인한. (2021). <중국 국력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격화 가능성: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신 아세아 제28권 제1호. p.40.

6) A2/AD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 주도권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전략으로, 유명함대라 불리는 무인 무기 및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8).

8) 김태호. (2019).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다오위다오 및 한반도>. 대만 연구 제14호.

박재찬. (2022).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2/AD전략의 진화를 중심으로 ->. 중국과 중국학 제45호. p3.

## 2.2 무인 무기체계의 거점화

무인 무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인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무인 무기체계의 장점인 대량 생산의 용이성, 손실 부담의 최소화, 인공지능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무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 중국은 무인 함정 전단을 구성하고, 해양 AI 지능화 작전 역량을 확보<sup>9)</sup>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 내에서도 적의 무인 함정과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한국형 무인 무기체계 운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인 무기 체계 전략(거점화)을 수립하기 위해선 첫째, 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함정과 무인 잠수정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A2/AD 전략을 실행하려면 무인 함정과 무인 잠수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 천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에 큰 함정이 내수로 깊숙이 파고들 수 없고, 자연스레 외곽 도서를 중심으로 해양 전력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무인 함정은 특성상 크기가 작아 내수로 깊게 파고들어 더욱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무인 잠수정은 현저히 부족한 한국 잠수함 개수와 침몰로 인한 인적 자원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무인 무기체계 시스템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도록 쉽게 제작되어야 한다. 신분, 병과, 신체 조건 등에 상관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사용할 수준의 UI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자원의 감축으로 미래 전장은 개인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 무기에 쉽게 숙달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쉬운 시스템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곽 도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서는 잘게 산재해 있어 적의 무인 무기체계 무력화 시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거점을 본토에서 이격하여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최외곽 도서를 따라 형성되는 방어선은 그 자체로 중국 동향 파악에 효과적인 정찰 정보 자산의 최전선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 2.3 흑산도 공항의 군사기지화

흑산도는 그 지리적 특성상 서-남해와 동해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흑산도 군사 공항의 건설은 서남해의 지리적 장점과 무인 무기체계 거점화의 이점을 동시에 확보해 줄 것이다.

흑산도 군사 공항은 항모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한국 해군의 불침 항모처럼 기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형 A2/AD와 연계, 한국의 해양 접근 거부 능력을 뒷받침하는 해양 통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목표의 3함대와 인접해 있기에 유사시 원활한 지원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흑산도 군사 공항의 지리적 장점이 된다.

다만 흑산도 군사 공항이 실제적인 대적 견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공중 장악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재래식 공중 전력과 ‘교전할 수 있는’ 수준만을 의미하는 조건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전 교리로서 모자이크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즉, 공중 전력의 ‘유무인 복합화’를 추진 중인 미국의 구상<sup>10)</sup>을 모방하는 등 한국의 새로운 미래 공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9) 김현승. (2021).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군사 제10호. p.34.

## 2.4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

근래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비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 및 안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명확하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력 증강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환태평양 훈련 (RIMPAC)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와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에 우리 해군에게는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타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벌였던 일련의 신경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미국이 대만을 대(對)중국 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전보다 대만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연스레 한반도에서 힘을 뺄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당위성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의 일부가 빠져나가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무기 및 전력 등을 통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근래의 국제 정세는 급격한 속도로 변동을 겪고 있다. 거대한 패권과 거대한 도전의 갈등 양상으로 해석되는 금세기의 국제정치적 동향은 그것이 자아낼 정치적 급류로써 주변국의 신변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국 연안이 패권 경쟁의 대표적인 대리전 지대가 되었다는 정치적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 정세에 지대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급박한 양태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어떠한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대학생이자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의무일 것이다.

본고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세력 전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 중국의 팽창적 해양 전략 등으로부터 촉발되는 동아시아 해양 정세 변화의 개황을 서술하였다. 이후, 미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A2/AD, 흑산도 공항의 군사기지화, 서해 외곽 도서의 해양 무인 무기체계 거점화 등을 들었다.

위와 같은 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되길 기원해 본다.

---

10) 박재찬. 앞의 논문. p.123.

< 참고 문헌 >

[논문]

- 김인한, <중국 국력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격화 가능성: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제28권 제1호, 신아세아학회, 2021, 36쪽.
-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제33권 2호, 동북아연구학회, 2021, 8쪽.
- 김진호,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25권 제2호, 한국동북아논총학회, 2020, 3쪽.
-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다오위다오 및 한반도>, 제14호, 대만연구학회, 2018, 6쪽.
- 김현승,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제10호, 한국군사학회, 2021.
- 박재찬,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인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2/AD전략의 진화를 중심으로 ->, 제45호, 중국과 중국학 학회, 2022.
- 반길주,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64권 1호, 아세아연구학회, 2021, 374쪽.
- 정광호, 백주현, <중국의 해양강국 구상과 ‘동방서공(東防西攻)’ 전략: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제83호, 전략연구학회, 2021, 65쪽.

[기관]

미 해군정보국(ON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단행본] Henry Kissinger. (2011). On China. The Penguin Press.